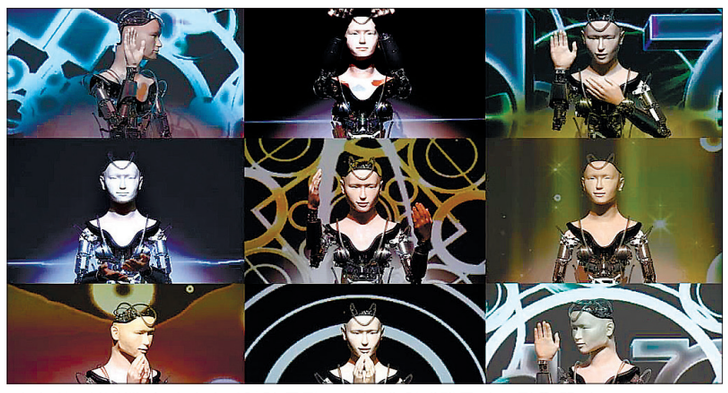


교토 고다이지에서 공개된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더'가 설법하는 모습.


마인더는 설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도 가능해 참배객들의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산케이뉴스

관세음로봇 '마인더' 일본서 각광

교토 고다이지, 10억 원 들여 로봇 불상 제작

스님 · 안드로이드 교수 대담

'부처님 가까워질 방법' 고민

영상기술과 함께 법문 가능

중국어 · 영어자막도 표시돼

박영빈 객원기자

설법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불상이 탄생했다. 지난 2월 24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마이니치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이 특별한 불상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2월 23일 교토의 고찰 고다이지(高台寺)에서 공개된 관세음보살상은 '마인더'라고 이름 붙여진 로봇이다. 높이 195㎝, 무게 60㎏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다. 불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고다이지의 고토 덴쇼 스님과 오사카대학의 이시쿠로 히로시 교수와의 대담에서 비롯됐다. 덴쇼 스님은 "이시카와 교수와 대담 중에 '부처님과 사람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불상 제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담 끝에 덴쇼 스님은 최첨단 기술인 안드로이드 불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불상의 외형은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 관세음보살이 로봇으로 화현한 모습을 이미지화 했다.

안드로이드 전문가인 이시카와 교수가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담당하고, 동체는 로봇전문회사 '에이랩'이 2017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1억엔(한화 약 10억원), 본체 제작비에만 2,500만엔(한화 약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완성된 로봇 관세음보살상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얼굴과 손을 제외하곤 안드로이드 골격이 그대로 노출되게 제작됐다. 고다이지 측은 "남은 부분은 참배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다이지 대중스님들은 정식으로 점안의식을 봉행하고, 마인더 관음상의 첫 설법을 공개했다. 가상영상 기술인 프로젝션 맵핑을 배경으로 법문이 진행됐다. 프로젝션 맵핑 화면에는 법문과 관련된 이미지와 함께 법문내용이 중국어와 영어자막으로 표시됐다. 고다이지 측은 "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불교를 전하고자 외국어 자막을 함께 표기했다"고 전했다.

마인더 관음상은 왼쪽 눈에 내장된 카메라로 참배자들을 확인한 후, 기계음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마인더 관음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해간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에게 의지하라"고 법문했다.

개발에 참여한 덴쇼 스님은 "마인더 관음은 어렵지 않은 평이한 말로 설법한다. 스스로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불상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다이지 측은 3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인더 관음상을 공개한다.

불교 두려운 중국의 '막행막식'

천으로 가리고, 佛頭 자르고… 도 넘은 훼불

중국의 종교 · 인권 잡지 '비터윈터(bitterwinter)'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상 철거 · 훼손 자료를 입수해 2월 23일 공개했다.

비터윈터는 "중국 정부는 스님뿐만 아니라 불상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서야 불상들의 철거, 훼손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심지어 보호받아야 할 역사 문화 유적들에 대한 제재도 극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방의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관내 현(县)급의 좡허(莊河)시에 위치한 천불동 명승지가 대표적인 피해 유적이다. 2018년 9월 당국이 "불상이 옥외에 설치돼 있고, 너무 커서 법에 위배된다"는 구실로 10m 넘는 불상의 철거를 명령했다는 것. 당국은 '아미타불' '중생제도' 등의 문구를 제거하고 불교기를 국기로 대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중국의 대표적 불교 유적지인 천불동은 요나라와 금나라 때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정책을 세운 후 대부분 훼손됐다. 2000년부터 불자들이 '천불동 재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화산 조사묘에서 나온 조사상 머리가 다수 잘린 모습. 사진출처=비터윈터

특히 당국은 고용한 철거 인력이 부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공사를 꺼리자, 유적 관리인에게 직접 인력을 고용해 불상 철거를 종용했다는 게 비터윈터 측의 설명이다. 비터윈터는 "당국은 관리인이 이행할 때까지 감시했다"며 "다양한 크기의 옥외 불상들이 무더기로 강제 철거됐고, 붉은 천으로 감싸진 불상들도 있다. 같은 시기 주화산 관광지역 내 거대 불상들도 '무허가'라는 이유로 콘크리트 및 단열판 등으로 가려졌다"고 설명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중부 후베이성 광수이시에서 나온 10여 명의 경찰들은 조사묘(祖師廟)에 들이닥쳐 대형 망치로 조사상을 부수고, 방해할 시 체포한다고 사찰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아일랜드 작가에 禪 알린 한국 스님은?

힐러리 퍼닌, 지역 언론에 혜민 스님과 인연 소개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힐러리 퍼닌(Hilary Fannin)이 선불교를 처음 접한 일화를 아이리쉬타임즈와의 2월 22일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선(禪)'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퍼닌에게 미약하나마 '일상의 선'을 알게 한 것이 한국의 선 수행자라고 한다. 그를 선불교의 길로 안내한 수행자는 바로 혜민 스님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하버드대에서 교육을 받은 한 선 수행자와 통화를 했다.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혜민 스님을 "트위터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있는 스님"이자 "전 세계에서 약 4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로 표현했다.

퍼닌이 접한 혜민 스님의 저서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Love for Imperfect Things)이 대표적이다.



혜민 스님 덕분에 선(禪)에 대해 알게 됐다는 힐러리 퍼닌. 사진출처=아이리쉬타임즈

그는 "나는 사실 자기계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평화'와 '만족'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침서는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대단히 미숙한 점이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가 내게 '긴장을 풀라'는 등의 말을 하자마자 펄쩍펄쩍 뛰고 싶다"면서도 "부처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한 혜민 스님의 책은 금방 선반 위에서 사라질 것(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했다. 저서 내용 중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친구, 가족, 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그는 또 혜민 스님에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일을 알리는 것이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스님이 "피곤하지 않다. 항상 명상과 영적 수행을 위한 시간을 만들며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 가르침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혜민 스님은 시차의 한계를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패닌은 혜민 스님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술회했다. "하루에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으라는 혜민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게 패닌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일상의 반복적인 고민들을 대하는 혜민 스님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패닌은 "스님에게 나처럼 (고민들로)밤에 잠을 설치는지, 수없이 반복하는 걱정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물었다"며 "스님은 '우리가 모든 생각에 같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가 YFLO 회원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계정 더 부디즘

"불자들, 여성 역할 제고 힘써야"

달라이라마, 뉴델리 여성단체 YFLO 강연서 강조

달라이라마가 여성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 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는 달라이라마가 2월 18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Young Ficci Ladies Organisation(YFLO) 단체서 온 75명의 여성 대표단과 가진 만남에 대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인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예로 들며 "정치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자를 비롯한 인도인들은 공평한 성 역할은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에 설립된 YFLO는 전문적 · 기업가적 배경을 갖춘 젊은 여성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조직됐다. YFLO는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자리서 한 청중은 티베트불교가 여성에게 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적 관습의 결과에서 기인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현재 게셰마(티베트 여성 출가자의 최고 학위)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독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國譯泰華禪學大辭典

1. 천안 평심사 淨圓和尙이 중국 · 대만 · 일본 · 한국 4국에서 발행한 근현대 불교사전류 20종을 대조 첨삭하고 여기에 대장경을 2회 열람하면서 수집한 禪學詞語를 增入하여 집대성한 초간본 사전의 증보판, 漢文 선학사전으로론 세계 최다 최대.



2. 가로쓰기, 詞目의 가나다 순으로 원문을 수록하고 문단의 단락 따라 한글번역, 번역문 중 한자는 모두 한글 병기.

3. 범어와 파리어는 〈梵〉〈巴〉 표시와 함께 영문표기. 전체를 완역, 오류 1천여 곳을 訂正.

4. 네이버 · 다음 주 검색어 국역태화선학대사전 (1권 무료 다운로드)

총 10권 / 10,024쪽 / 詞目 42,235항 / 예문 34,068조 / 11pt / 4×6배판 / 하드 양장 / 정가 80만 원

• 구입문의 010-7566-7503 (정원) • 입금 우체국 311787-02-000518 (김호열)